

완도 해양치유센터, 심신 치유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한국관광공사, 콘텐츠 적정성·외래 관광객 유치·발전 가능성 등 평가 완도군, 해수·머드·해조류 등 16개 테라피실 운영...전남 유일 선정

완도군 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름을 알리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시설을 선정해 오고 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전국 13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도에서는 완도만 이름을 올렸다. 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총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춰 지난해 11월 개관했으며 완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달 12일 기준 2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웰니스 관광지,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와 관광 상품화, 맞춤형 개별 컨설팅과 역량 교육, 대국민 웰니스 관광 이벤트 참여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 기반을 다져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 4월 초 (재)전남관광재단 주관 '2024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도 선정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10일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해양치유센터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현판식이 열렸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벼 재배면적 감축...쌀값 안정 대책 마련

이달까지 참여 농가 신청 접수...올해 774ha 감축 목표

해남군이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값 안정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농민들에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신청을 받아 가루쌀, 조사료, 두류 재배 등으로 774ha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벼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하거나 감축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를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한다.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남군은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전락작물

(콩) 재배단지 2개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0개소, 가루쌀 생산단지 10개소 등에 선정돼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축협약에 농업인들의 참여가 이어져 당초 목표인 1034ha에서 188% 초과 달성한 1954ha를 감축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비 32억원을 추가 배정받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이 과다해 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무안 양파 기계 수확했더니 노동력 절반으로 '뚝'

해제면·청계면 일원서 연시회 올해 전년보다 3배 확대 계획

무안군은 올해 양파 기계 수확 목표 면적을 지난해보다 3배 늘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해제면과 청계면 일원에서 양파 기계 수확 연시회를 열었다. 연시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관계자, 지역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계 수확 연시에서는 조생양파 기계 정식(모종 심기) 포장과 인력 정식 포장을 비교했다. 비닐이 있거나 양파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줄기를 자르고 캐내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줄기가 있는 조생양파를 기계로 수확해 기존 노동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무안군은 12년 전부터 양파 재배 기계화에 힘써 왔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농식품부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에 선정돼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굴취기, 수집기 등 49대를 15개 양파 기계화 협의체에 보급했다. 기계 수확은 지난 2022년 43ha, 지난해 102ha



무안군이 해제면의 양파밭에서 기계 수확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무안군 제공>

규모 양파밭에서 진행했다. 올해 양파 기계 수확 목표면적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310ha로 늘렸다. 기계 수확은 농가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이재광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무안의 주작목인 양파의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양파재배 기계화 교육과 농기계 보급 노력으로 기계화 재배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맛·건강 잡은 '진도흑미 수제 피자' 전국구 인기

진도군-알볼로F&C 업무협약 대표 농수산물 유통 판로 지원 등

진도흑미가 수제 피자로 거듭나 전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알볼로F&C와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새로운 조리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재욱 알볼로F&C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도군과 이 업체는 진도산 농수산물의 유통 판로 지원과 판매전략, 홍보 등에 서로 힘쓰기로 했다. 알볼로F&C는 100% 수제 피자 전문점으로, 밀가루 반죽 대신 유기농 진도산 흑미 반죽을 사용했다. 진도산 흑미 반죽을 사용한 이 업체는 특이권을 쥐었다. 흑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항암 등에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진도는 국내 최대 흑미 원산지이다. 온난한 기후와 해풍으로 흑미 외에도 대파, 울금, 시금치, 봄동 등의 건강학 먹거리가 잘 자란다.



김희수(가운데) 진도군수와 이재욱(오른쪽 세 번째) 알볼로F&C 대표 등이 '진도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의 대표 농산물을 알릴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맥도날드 대파버거, CU편의점 대파 간편식 등으로 전국 소비자와 만났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대표 농산물인 흑미의

판로 확대에 지역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도 농산물을 전국 어디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kwangju.co.kr

딱 요맘때만 맛보는 '깡다리' 매력 속으로

신안군, 25·26일 입자도서 섬 깡다리 축제...공연·경매 등 행사

신안 입자도에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조기의 새끼를 뜻하는 '깡다리' (사진) 맛의 진수를 즐긴다. 신안군입자면 섬깡다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유억근)는 이 기간 입자도 톨립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5회 섬깡다리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깡다리는 지역에 따라 갈달어, 황석어, 황새기라고도 불린다. 주로 5-6월에 잡히며, 젓갈 또는 건장(말린 생선)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입자도 전장포라는 항구에서 깡다리 파시(생선 시장)가 열릴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축제 추진위는 입자대교 개통 이후 축제장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방문객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깡다리 경매 등이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입자도에서는 12km 펼쳐진 대광해변과 어머니 용난굴, 전장포 새우젓 토굴 등 다



양한 명소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전장포항은 78척의 어선이 1025t의 어획고와 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ESG 윤리경영 확산·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59개 사업 이행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했다.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6년 연속 최우수(SA)는 전남에서 유일하다. 해남군은 '공평, 공정, 공개'의 균형 운영방침으로 민선7기 4년 내내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민선8기 2년 차까지도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자랑했다. 군은 민선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의

군정목표 아래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 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 5대 방향 15개 전략 114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민선8기 해남군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생활 불편해소 우리동네 복지동대 추진, 고산유물전사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운영 등 59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빈집 활용 주거환경 개선 모색

정비계획 용역 보고회...빈집 943호 안전 대책·철거 후 조치 등

영광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에 943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영광군의회 의원과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은 영광에 모두 9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빈집은 253호(26%), 보수가 필요한 2등급 빈집 621호(66%),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69호(7%) 등이었다. 빈집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가 많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역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등급 빈집의 교통망, 주변의 거점시설을 조사해 활용 방안과 시행 방법을 제시했다. 철거형 빈집에 관한 안전조치 방안과 철거 후 조치방안도 논의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

목포시립합창단 '찾아가는 기획연주회'

18일 자연사박물관

목포시립합창단이 5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앞두고 오는 18일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찾아가는 기획연주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목포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서는 '함께 놀자 뮤직플레이'를 주제로 관객 참여형 공연이 진행된다. 영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수록곡과 국내외 인기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목포시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목포

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근대문화유산 등을 배경으로 찾아가는 기획연주회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희 목포시립합창단 지휘자는 "2024 목포시립합창단 찾아가는 기획연주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공연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으니 많은 이가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를 주 개최지로 전남 전역에서 열린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